

간호대학생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

남문희*, 김혜옥**

대동대학교 간호학부*,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Work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under Preceptorship

Mun-Hee Nam*, Hae-Ok Kim**

Dept. of Nursing, Daed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3년+1년 학제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프리셉터십 실습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직의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실습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23명의 참여자를 네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 그룹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Corbin and Strauss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의 중심현상은 '등대 찾아가기'였다. 원인적 조건은 간호업무를 배우는 기회였다. 맥락적 조건은 진짜 신규 간호사가 된 기분, 임상현장의 생생한 정보획득, 학생들의 프리셉터십 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부재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근무환경, 주도적 학습 및 애착심이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 맞추어 가기, 남의 일 같지 않은 일 및 아는 것만큼 보임으로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뿌듯함 및 신규간호사 역할 배움에 대한 여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등대 찾아가기' 과정에 있는 간호 학생들에게 유용한 임상 실습 향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근거이론, 질적연구, 프리셉터십,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ork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under preceptorship in 3+1 year program, and suggests effective practice to prevent stopping nursing profession. Four focus group interviews were made with 23 nursing students in 3+1 year program.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of Corbin and Strauss' (2008).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central phenomenon of was 'looking for lighthouse'. The causal condition was 'opportunity to learning practice'. Contextual conditions were 'mood of being a true nurse', 'getting vivid information about clinical field', and 'lack of students perception about preceptorship'. Intervention conditions were 'work environment', 'proactive learning' and 'attachment to the hospital'.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adjustment to diverse demands of patients and guardians', 'feeling as if it were one's own affair', and 'looking as much as knowing'. Consequence were 'pride' and 'itinerary of learning as a new graduate nurs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gives useful basis to nursing students in the process of 'looking for lighthous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Preceptorship, Convergence

Received 13 July 2017, Revised 16 August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ae-Ok Kim(Kyungnam University)

Email: hok503@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전문직으로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대상자들의 간호 문제 상황에 맞는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간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임상 실습교육을 통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와 총체적인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간호인으로서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2, 3, 4]. 또한, 임상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학습 과정임과 동시에[5], 의료기관의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의료 전문직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회성과 책임감을 배우고, 간호 전문직에 대한 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사로서 간호 철학과 윤리적 감각을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6].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 실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교과목에 22~24학점(1,000시간 이상) 이수과 동시에 임상 실습 교과목에 핵심기본 간호술 20항목을 규정하고 있다[7].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임상 실습 때, 환자들로부터 감지하는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존감 저하와 간호 전문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론 간호학 전공에 대한 심각한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8], 임상 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수, 학생과 병원 관리자, 임상현장 지도자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고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9].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습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기본간호 술기를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현 실정이다[10]. 이런 상황 속에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하지만 상당수가 간호사로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여 타 전문직보다 이직률이 높다. 2015년 병원 간호 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규 간호사 채용인원 14,233명 중 이직자는 4,828명(33.9%)으로, 정규 발령 후 이직한 간호사가 1,453명(10.2%), 부서 현장 교육 전 이직이 2,124명(14.9%), 부서 현장 교육 중 이직 408명(2.9%), 임시직 중 이직한 간호사 843명(5.9%) 이었다[11]. 이러한 신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하여 간호대학에서는 취업 전 학생들에게 프리셉터십 교육을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규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리셉터십 프로그램에서, 프리셉터의 역할은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연결하여 주고, 실무에 자신감을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의 직업 만족도를 증가 시킨다고 하며[12, 13], 프리셉터십 적용은 간호 학생들의 임상 실습교육에도 효과적이었다[14]고 한다. 아동 간호 임상 프리셉터십 실습 경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간호 수행에 초점을 두어, 관찰을 넘어선 직접간호 수행에 따른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가 증가하고, 임상 수행능력에 있어 자신감을 향상하고, 간호 전문직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도 효율적인 실습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15]. Hickey[16]는 간호 학생들에게 있어서 프리셉터십을 활용한 실습교육이 이론과 임상 차이를 최소화하고 임상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1: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임상실습지도 사례연구에서 학생들은 안정감, 직접 간호 기회 증가, 실시간 피드백, 통찰력, 이론-실무 연계성, 의사소통 기술, 자신감, 책임감 및 전문직 태도 등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최근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의 인턴십 체험[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과정[19] 및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습 대처 경험[20]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간호교육 일원화(3년+1년 학제)과정에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임상실습 1,000시간 이수한 학생에게 프리셉터십 실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간호학제(3년+1년 학제) 중 3학년 과정을 마친 간호대학생에게 프리셉터십 실습을 하여 미래의 직업 세계의 경험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재 행하고 있는 임상 실습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간호직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 주위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시각으로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제(3년+1년 학제) 중 3학년 과정을 마친 간호대학생에게 프리셉터십 실습 적응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간호대학생이 프리셉터십 실습을 하여 다양한 임상 실습 환경, 간호단위, 각 병원이 가

진 교유의 조직문화의 특성과 간호사들처럼 3교대 간호 업무를 실행하면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호사, 타 의료진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해하고, 더 효율적인 임상 실습을 융합 학문으로 도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나온 현상을 토대로 학제 과정에 필요한 교육 과정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신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개발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간호직의 중도 포기를 예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간호 조직 단위를 이해하고 기술하면서, 총체적 현상을 탐색하여 신규 간호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간호 실무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하고, 더 나아가 간호직의 중도 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문제는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과 그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3년 +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초점 그룹 면담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21].

자료 분석은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에 바탕을 둔 Corbin과 Strauss [22]의 방법을 적용한 근거 이론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B 광역시 소재의 1개 간호학과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3년+1년 학제)의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임상 실습 1,000시간 이수 후, 병원 연계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과정에 참여한 자(40명)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서면으로 동의한 자 23명으로 모두 여학생이다. 평균 나이는 21.3세였다.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 선정은 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병원 위주로 사전에 특성화 사업 담당 교수와 간호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4개 병원을 선정하고, 실습 부서에 따라서 실습 학생들을 배치하여 시행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¹⁾

Characteristics	Division	No(%)
Age(yr)	21	15(66.0)
	22	8(34.0)
Hospital	General Hospital 1	7(30.0)
	General Hospital 2	8(35.0)
	Middle Hospital	3(13.0)
	Special Hospital	5(22.0)
Sex	Female	23(100.0)
	Ward	11(47.8)
Department	SICU	4(17.4)
	MICU	6(26.0)
	Emergence Room	2(0.8)

2.3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대학의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RB)의 승인(1040460-A-2015-009)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시행 전 간호학과 게시판에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를 공지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 보조자에게 제출하고, 연구 보조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초점 면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면담 내용의 녹음, 자료의 익명 처리와 함께,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자필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자료부터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자료와 메모는 연구책임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비밀 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별 구분 표시로만 기록 및 분석하면서 익명성을 확보하였다.

모든 연구 자료와 녹음된 자료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

1) N=총 참여자 수

일까지였다.

면담은 초점 면담으로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하여 각각 다른 간호단위에서 실습한 경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도 있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의 의미는 참여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즉, 병원의 규모, 실습 부서, 간호 조직 구성원, 대상자 및 보호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에 이제 맞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2차 병원으로 기존에 실습병원으로 이곳에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로 3명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전문병원으로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으로 처음 학생들이 실습하는 병원으로 참여자는 5명이었다. 세 번째 그룹은 3차 종합병원으로 기존 실습병원으로 참여자가 8명이었다. 넷 번째 그룹은 참여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3차 종합병원으로 7명이었다.

면담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다. 사전 면담 전에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2대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 중 참여자가 중요하게 진술하는 것을 요약하여 면담 종료 후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습병원 세미나실과 학교 주변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면담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하여 2명의 연구자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하였다.

연구책임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연구자는 면담의 주요 내용과 참여자들의 표정이나 태도와 같은 표현과 분위기를 메모하였다. 주요 면담 질문에 사전에 준비되었고, 면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은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으로 ‘간호대학생(3년 +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는 포괄적인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간호대학생으로 병원 연계 프리셉터십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프리셉터십 참여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정규 실습 과정과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프리셉

터십 융복합 실습 때 실습 부서 간호사, 수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들께서 참여자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대하였는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실습에 임한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핵심 기본 간호술이 프리셉터십 실습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프리셉터십 실습을 마치고 난 뒤 실습한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한다면 간호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 및 간호단위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관찰을 통하여 느낀 경험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등이었다.

참여자들에게 핵심적인 실습 과정 경험이 나오면 이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반복하면서 연구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였다. 면담 종료는 도출된 주제나 개념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면담 기록은 면담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면담 시 메모도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확인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점 면담 내용, 메모, 도식화를 통하여 Corbin과 Strauss [22]의 근거 이론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원 자료 내용 간에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하였고, 미비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메모해 두어 다음 면담 시에 보충질문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음 면담 시에는 지난번 필사 내용을 보여주어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 축 코딩 및 선택코딩 단계로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초점 면담 내용과 메모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일차적 의미가 발견될 때마다 속성과 차원을 확인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유사 개념끼리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축 코딩에서는 원인 조건, 맥락, 중재요인,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를 포함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범주 간 연결 코딩을 규명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자료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여 연구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인 행동 패턴을 찾아내어 핵심범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3년 +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도출하였다.

2.5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 및 연구자 준비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 [23]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및 확증성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 중에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참여 경험자를 선정하였으

며, 참여자로부터 녹음한 면담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다. 그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점검하였다. 각 그룹 면담 종료 시마다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을 확인하였다. 최종분석 결과를 참여자 4명에게 보여주어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적용 가능성을 위해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를 프리셉터십 병원별 및 실습 부서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였고, 면담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진행하여 자료가 포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대학생 5명에게 결과를 보여주어 개념에 대해 공감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주요 질문

<Table 2> Categorization of Concepts a Sub-categories

Concepts	Sub-categories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tinguished practice Learning opportunity for specified clinical adjustability Personal experiencing roles of new graduate nurse before getting a 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portunity to learn nursing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usal con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neficial funds in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od of being a true nurse by personal nursing works Getting vivid information about clinical fi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od of being a true nurse Planning opportunity for one's own future by getting vivid information about clinical fi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extual con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rning pleasure about new graduate nurse's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anning chance for one's own future by advices from senior n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ck of students' perception about practice under precepto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rst practice under clinical precep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eling of powerful and healthy nursing department Atmosphere like family Good working environment using new advanced medical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ention cond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motion of self 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tivation to overcome weak points after awareness of them Self learning opportunity More affinity to patients Recognition about importance of theoretical b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active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tachment to the hospital and adjustability with perception of nurse service and the atmosp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tachment to the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nse of working with one's own best and absence of failure in duty Learning new things with nurse's sincerity to patients Very charming v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s competence is affecting pat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ral phenomen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ing for light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 as emotional laborer Opportunity to make good rapport with patient and guardians Having a dream to instill confidence in medical personnels and cl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justment to diverse demands of patients and guardi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tting nursing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creasing job like a snowball according to conditions of patients Very sadness with feeling as if it were my own affair Control one's own stam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eling as if it were my own af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rning of practice experience through the saying,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roving confidence with thr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motion of p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eq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tablishment of identity as a new graduate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relax with learning Thinking one's own future image through meeting head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justability on nurs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bservation of nursing jobs that nurse's have mission and kindness without time solving physiological phenome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inerary of learning into a new graduate nurse 	

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으로 면담 자료 및 메모 자료와 자료 분석 과정 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순환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간호학 교수로부터 분석 내용의 적절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확증성을 유지하고 연구자의 지식이나 참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특히 면담 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을 방지하면서 경청하였고, 판단중지를 통해 자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료로부터 경험의 의미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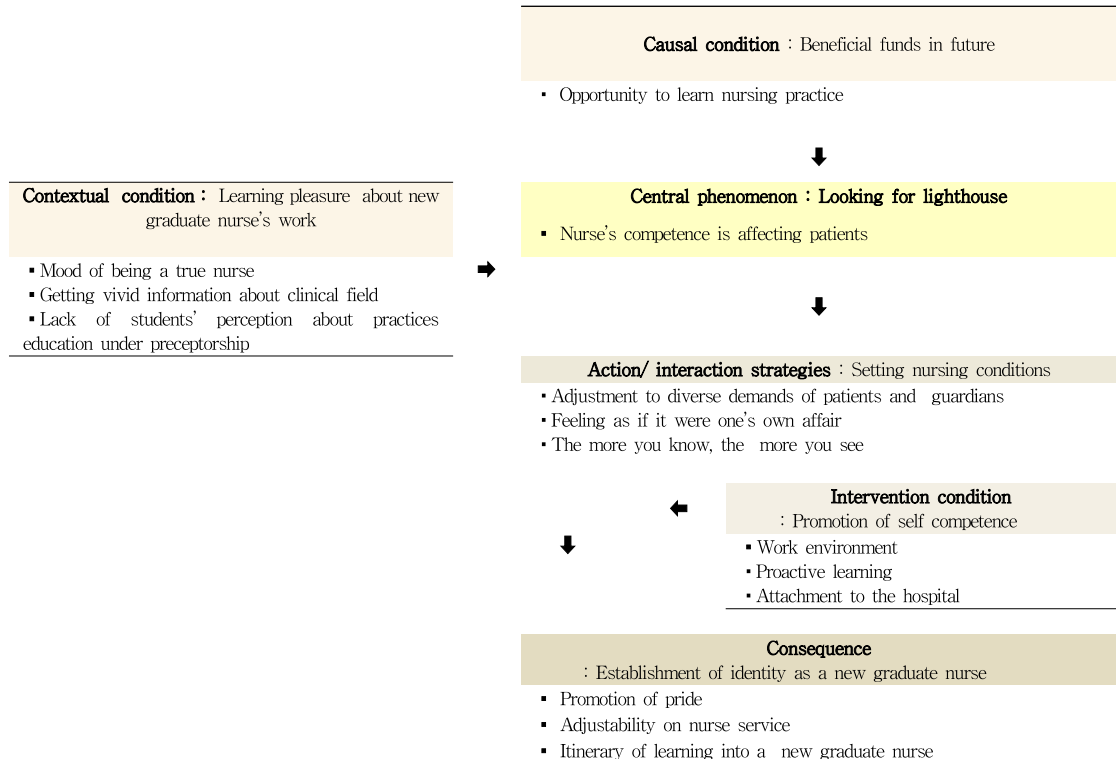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Guba 와 Lincoln [23]의 4가지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았고, 박사학위 논문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졸업 후 질적 연구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질적 연구 능력 함양에 힘써 왔다. 또한, 간호대학에서 17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후 많은 졸업생이 조기 이직하는 현상을 보고 이를 해결할 간호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 핵심범주: 등대 찾아가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과정에서 범주 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의 차원이 통합되면서 드러난 핵심 범주는 ‘등대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통하여 실습병원의 환경, 실습 부서, 간호직원, 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를 인지하고 미래의 신규 간호사의 역할에 대



[Fig. 1] A Convergence work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under preceptorship

한 배움의 여정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임이 확인되었다.

3.2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에 따른 범주분석

간호대학생들(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은 참여자 23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30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으로부터 29개의 개념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open coding)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근거 자료에 의해 도출된 14개의 범주를 인과적 상황(casu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 상호작용 및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및 결과(consequences)로 분석하여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으로 제시하였다[Fig. 1].

3.2.1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에서 확인 29가지의 개념을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한 결과 총 14개의 범주로 도출되어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차별화된 실습’, ‘전문화된 임상 적응력을 배우는 기회’, ‘취업 전 신규 간호사 업무를 직접 경험’의 개념을 묶어[간호사의 업무를 익힐 기회], ‘직접간호 수행으로 진짜 신규 간호사가 된 기분’의 개념을[진짜 신규 간호사가 된 기분], ‘임상 현장의 생생한 정보 획득’, ‘선배 간호사로서의 조언을 통한 미래를 설계’의 개념을 묶어[임상현장의 생생한 정보 획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 ‘첫 프리셉터십 실습’의 개념을[학생 프리셉터 실습 교육의 인식 부재], ‘간호부가 힘이 있고 건강한 조직이라고 느낌’, ‘가족 같은 분위기’, ‘최신의 의료기기로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의 개념을 묶어[근무 환경],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보충하기 위한 동기부여’,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기회’, ‘환자와 친밀해짐’, ‘이론적 근거의 중요성을 알아감’의 개념을 묶어[주도적 학습], ‘부서의 업무 분위기를 알면서 적응력과 애착심이 생김’의 개념을[애착심], ‘근무 태만 없이 자기 업무 시간에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느낌’,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움을 배움’, ‘참 멋있는 직업’의 개념을 묶어[간호사의 역량은 환자에게 영향을 줌], ‘간호사의 업무는 감정노동자’, ‘환자분,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기회’, ‘의료진 및 대상

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꿈을 가짐’의 개념을 묶어[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에 맞추어 가기], ‘환자 상황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업무’, ‘남의 일 같지 않아 너무 슬픔’, ‘자기 체력관리’의 개념을 묶어[남의 일 같지 않은 일],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속담을 통한 실습 경험 배움’의 개념을[아는 것만큼 보임], ‘신뢰 속에 자신감 증진’의 개념을[뿌듯함], ‘여유롭게 배움’, ‘수 선생님의 면담시간을 통해 자신의 미래 간호사 상을 생각함’의 개념을 묶어[업무에 대한 적응력 생김], ‘생리현상도 해결할 시간도 없이 바쁜 업무 속에 친절성과 사명감이 있는 간호사 업무 관찰’의 개념[신규간호사로 되어 가는 배움의 여정]으로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3.2.2 범주분석

가. 인과적 조건: 미래에 도움이 될 밑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간호학과에서 대학 특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 중 3학년을 마치고, 1년 과정이 남은 학생들을 위하여 처음으로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과정을 시행하였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정한 1,000시간 이외에, 차별화된 실습, 전문화된 임상 적응력을 배우는 기회, 취업 전 신규 간호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것, 병원과 간호사의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및 취업을 원하는 병원에서 미리 실습 경험을 익히고 싶다는 등등 다양한 동기로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자 및 프리셉터십 실습병원 모두가 초심자인 상황에서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핵심 범주인[등대 찾아가기]를 유도하게 된 원인적 요인의 범주는[간호사의 업무를 익힐 기회]로 나타났다.

진짜로 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호사처럼 일을 배우고 공부할 좋은 기회이고, 일을 통해서 혼도 좀 나보고 해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그룹 2, 참여자 3).

취업과 연관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신규 간호사로서의 일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요(그룹 4-참여자 6).

나. 중심현상 : 등대 찾아가기

참여자들은 프리셉터십 실습 4주간을 간호사들과 같이 실습하면서 관찰한 간호사의 업무, 역량, 태도 그리고 실습에 대한 면담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중심 현상으로

는 ‘등대 찾아가기’가 도출되었다. 범주는[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에 영향을 줌]이 구성되어 다른 범주들과 상호작용 되는 이론적 핵심 범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에 영향을 줌

참여자들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의 중심현상은 ‘등대 찾아가기’ 위해서 실수도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실력이 된다고 인식하고, 실습과정 중 겪은 경험은 잃을 것도 없고,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에 시간 낭비는 없다고 인식하였다. 또 여러 병동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 참여자들은 간호사마다 말하는 방식, 업무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환자의 궁금한 점, 요구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부서에 연락하여 알려 주고, 친절하게 성실히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텔런트 같다고 느끼고 자신들의 취업 진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본보기 간호사를 찾아가는 ‘등대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간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간호 수행 전에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간호사의 법적인 확인 의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선배 간호사로부터 간호사들이 가진 간호 역량이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따뜻한 조언의 말씀도 들었다고 한다.

정규 임상 실습 때 간호사끼리 서로 갈굼을 본 모습과 다르게, 간호사 간 서로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갈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실습 변표에 따라 3일간 밤번 실습과 3교대 실습 경험을 통하여 임상 간호사로서 직업을 가질 것인지, 3교대 및 밤 근무도 하지 않는 다른 간호 분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간호사들의 업무 스타일, 수행능력, 간호기술, 교육방법, 인품, 조직 분위기, 물품 준비과정, 직접 간호기록을 하거나 및 인수인계를 통해 긍정과 부정적인 경험을 통합하면서 미래의 멋진 간호 전문가로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들께서도 대부분 얼굴도 항상 밝으시고 뭔가 모르게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큰 병원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 때 아! 정말 공부도 많이 하였겠구나. 괜히 이런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러한 시술, 약물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알고 학생들에게 알려 주시고 간호사가 그냥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호사가 참 멋진 직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그룹 4, 참여자 4).

바쁜 가운데도 환자 확인과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그룹 1, 참여자 1).

간호사끼리 갈굼의 모습이 아니고 친밀한 유대감 갖고 근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그룹 2, 참여자 3).

다. 맥락적 조건 : 신규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즐거움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은 4곳이며, 규모는 2차 병원 및 3차 종합병원이었다. 실습 부서는 특수 분야, 외래 및 병동에서 시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습병원의 규모나 부서는 달라도 신규 간호사의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하부 개념으로 긍정적인 경험은 ‘진짜 신규 간호사가 된 기분’, ‘임상 현장의 생생한 정보 획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이었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학생 프리셉터십 실습 교육의 인식 부재’로 나타났다.

1) 진짜 신규간호사가 된 기분

간호대학생들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규 임상 실습은 한 부서에서 실습하는 기간이 1, 2주 안에 끝난다. 이에 비해 참여자들은 한 부서에서 4주간 실습에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프리셉터십 학생들을 잘 챙기고, 간호업무를 시행하기 전에도 항상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 간에 유대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고, 밤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같이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진짜 간호사가 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간호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간호사 및 타 의료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의료진 간의 협력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환자 상황을 접하면서 더 공부해야 할 것을 인

식하였고, 책에서 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임상 실무에서 직접 볼 수 있었으며, 학생 때와 똑같은 상황을 관찰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고 한다. 프리셉터십 실습 전에 학교에서 배운 핵심 기본 간호술을 완전히 습득한 것이 실습 관찰 시 머리에 잘 익혀지기도 하고, 그중 몇 가지는 직접간호를 수행 할 때 자신 있게 하였다고 한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임상 현장에 실시하는 프로토콜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오로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임상 실습 과제를 자료 조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가면서 환자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간호사의 역할을 모방해 나가고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불러주실 때 ‘학생’ 이 아니라 ‘~쌤’, 혹은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러 주니까, 학생이라 불릴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진짜 간호사가 되어서 취업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사뭇 느낌 달랐어요(그룹 4, 참여자 5).

학교에서 모형으로 실습했던 것보다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더 와 닿았고 자주 하다 보니 능숙해졌어요(그룹 3, 참여자 5).

병풍처럼 뒤에서 보고만 있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실습생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들을 도와서 나 스스로 대상자에 해 줄 수 있는 간호가 많았어요(그룹 4, 참여자 1).

밤 근무가 있는 근무표를 받고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밤 근무는 색다르고 평생 없을 생애 첫 나이트 실습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어요(그룹 4, 참여자 5).

2) 임상현장의 생생한 정보획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은 참여자들이 학생 실습 때 실습한 병원도 있고, 새로운 병원도 있었다. 실습 병원은 익숙한 곳으로 여기고, 새로운 병원은 처음이라는 두려움과 미래 취업을 원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실습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실습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참여자들은 특수 병원 대상자 간호를 위하여 특수치료 및 간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배울 수 있는 것에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신규 간호사로 취업하게 되면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나, 신규 간호사로서는 힘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임상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암 환자 간호에 대한 항암, 방사선 치료, 케모포트 관리 및 특수치료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그룹 2, 참여자 4).

수 선생님과 같이 실습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간호사로서 덕목, 마음가짐, 선배 간호사로서의 조언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그룹 2, 참여자 6).

중환자실 실습은 특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실습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소문과 나쁜 인식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실습으로 실습 병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그룹 4, 참여자 3).

3) 학생 프리셉터십 실습교육의 인식 부재

참여자들의 학교에서는 특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프리셉터십 실습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실습병원 4곳과 간호부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 간호부서장들과 사전에 실습에 관련된 신규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습병원마다 참여자들에게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수 선생님과 일반 간호사들 간에 학생들의 프리셉터십 실습 교육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참여자 중 일부는 간호사들이 체크리스트 실습 일지를 강요한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간호사 근무표가 바뀌에 따라 중복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증이 없는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해 주어야 할지, 직접간호를 허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근무마다 바뀌므로 인해 학생이 얼마나 알

고 있으며,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습교육이 중복되거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등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그림 3, 참여자 2).

첫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고 어땀한 상태였어요(그림 3, 참여자 3).

라. 중재적 조건 : 자신의 능력 증진

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으로 주어진 실습 상황에서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써 취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근무환경', '주도적 학습', '애착심'으로 나타났다.

1) 근무환경

참여자들은 미래에 자신이 근무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습하는 병원의 규모, 시설, 시스템 구조, 간호 조직 분위기 및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표현했다. 2차 병원이지만 가족 같은 병원 분위기 속에서 배려하는 근무 환경을 관찰하기도 하고, 병원 시스템에 만족하고, 간호부 조직이 힘이 있고 건강한 조직이라고 느끼기도 하였다.

또 다른 특수 병원은 최신 병원 시설로 굉장히 깔끔하고 간호사 팀원끼리도 밝고 활기차고 자신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간호사들이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제시간에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을 보면서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간호부 조직이 힘이 있고 건강한 조직이라고 느끼기도 했어요(그림 1, 참여자 1).

미래의 취업병원으로 생각했기에 호기심도 많았고요. 병원시설, 간호 단위 구조, 시설, 병실 크기, 최신의 의료 기계로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그림2, 참여자 2).

2) 주도적 학습

참여자들은 각 분야의 간호사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알아야 하는 새로운 간호 교육, 기술, 의료장비 및 약물 등 여러 가지를 최대한 가르쳐 주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

을 관찰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새로운 학습 경험과 흥미를 통하여 폭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받았던 정규 임상 실습 때에는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졌지만, 프리셉터십 실습에서는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바보스럽다고 느껴지게 되었다고 한다.

간호부에서 내어 준 체크리스트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를 보여 주었다.

과제가 없으니,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환자와 좀 더 가깝게 다가가 수 있었어요(그림 4, 참여자 2).

EMR을 보면서 이 환자의 병명이 무엇일까? 간호 정보 조사지에 대해 궁금점도 있고, 역지로 시켜서 하는 것 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었죠(그림 4, 참여자 4).

3) 애착심

간호사들은 참여자들이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쉴 곳에 가서 잠시 휴식을 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직접 챙겨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만약에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에 취업하게 된다면 3교대 실습을 해 보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가 되어도 3교대를 하지 않은 신규 간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병원에 대해서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정해진 밤 근무 후에는 기본적으로 3일 정도 쉬면서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 다리랑 발 많이 아프지?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어라(그림 4, 참여자 5).

전반적으로 Day, Evening, Night에 대해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게 되면 다른 신규 간호사보다 더 신규간호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림 4, 참여자 5).

마. 행위/상호작용전략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이 처한 현재 간호 문제 해결 및 상황에 대처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3가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적 행위 패턴은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에 맞추어 가기', '남의 일 같지 않은 일', '아는 것만큼 보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전략으로는 실습에 대한 태도, 사전 실습 교육 준비도 및 간호 수행 전에 시범을 보이고 수행하도록 한 후 잘한 경우에 간호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1)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 맞추어 가기

참여자들은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를 간호 관리하는 가운데 긍정 및 부정적 경험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 직업은 감정소모가 많은 직업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황 및 사람들에게 따라 대처 능력도 배우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환자분 및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복덩이 왔다면서 웃어주시는 환자분도 계셨습니다(그룹 3, 참여자 2).

보호자님 중 유별난 사람들도 많고, 짠 상인 환자분도 엄청 많았어요. 혈당검사 하는데 뭐 아프게 찌른다는 등 실습생이라고 무시하고, 흡인 시 발로 차려고 하고, 등 간호 시 손을 꼬집질 않나 이런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감정 소모가 많은 것을 알았어요(그룹 3, 참여자 6).

2) 남의 일 같지 않은 일

간호 단위 특성상 시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환자의 컨디션이 나쁘게 되기도 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업무가 밀리다 보면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환자 간호하느라고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쁜 가운데 환자 간호 요구에 친절하게 말 걸어 주고, 간호 업무가 끝나고 복도 나와서는 '정말 힘들다.', '짜증이 난다'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것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리현상도 제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상황의

간호사들을 관찰하면서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업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의사와 다루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환자분이 화가 나서 욕설하는 상황도 볼 수 있고, 또 환자가 말을 바꿔 간호사와 의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진 간에 협력 기술을 잘 적용하여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간호사는 아파도 자기가 할 업무는 있고, 그중 업무를 다 해내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중환자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표정이 밝으시고, 또한 대상자분들에게 임하는 자세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 미래 자신도 대상자로부터 존중받는 간호사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신규간호사가 된다면 해낼 수 있을까? 남의 일 같지 않아 너무 슬펐어요(그룹 3, 참여자 2).

이딜 가나 편한 병원은 없고 자기 일 제시간에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느꼈어요(그룹 2, 참여자 5).

솔직히 알람이 울리기만 하고 더 이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표정의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다음에 그런 간호사가 되리라고 다짐했어요(그룹 4, 참여자 5).

3) 아는 것만큼 보임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연차에 따라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외상환자의 경우 간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빠른 입원 접수와 응급처치를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환자가 불구가 되느냐, 재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프리셉터십 실습을 하여 간호 전문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간호사도 대상자를 사정함으로써 의사가 놓쳤던 부분

을 찾는 것을 보고 미래의 간호사가 지녀야 할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경험이었어요(그룹 3, 참여자 5).

바. 결과: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경험한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뿌듯함], [업무에 대한 적응력 생김], [신규 간호사로 되어 가는 배움의 여정]이 도출되었다.

1) 뿌듯함

참여자들은 간호사들로부터 칭찬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 간호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한 후 대답을 듣고 눈높이 교육을 하여 주었다고 한다.

‘학생 오는 날이 좋아요.’ 등등 칭찬을 받는 날이 많아져서 뿌듯했어요(그룹 4, 참여자 6).

2) 업무에 대한 적응력 생김

참여자들을 실습 기간 동안 간호사들에게도 인사도 열심히 하고, 대화할 때도 눈 맞춤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여, 항상 밝은 표정으로 실습하려고 노력을 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실습한 부서의 업무과정을 습득함으로 간호사가 질문 시 대답도 할 수 있고, 간호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실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한 것 같네요 가르칠 맛이 나네(그룹 1, 참여자 3).

오늘 낮 근무 잘 하네, ‘학생 감각 있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어디서 배웠어?’(그룹 1, 참여자 3).

3) 신규간호사로 되어 가는 배움의 여정

한 참여자는 초기에 분위기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닳 놓고 있을 때 간호사께서 많이 답답해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꾸중보다 칭찬을 받는 날이 많은 실습이었다고 한다.

정규 임상 실습 때에는 임상현장이 나랑 과연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처음에 프리셉터십 융복합실습을 신청할 당시 정규 임상 실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인데, 시간 낭비하면서 왜 참여해야지 고민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따라 자신이 처음에 한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뜻깊은 실습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다양한 신규간호사로 되어 가는 배움의 여정을 통하여 간호사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학생 실습해 보니까 어때? 뭘 좀 배우고 가는 것 같니?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답을 잘못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습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가지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도 했어요. 진짜 신규처럼 나이트도 해보고(그룹 4, 참여자 3).

“어느 병원을 가든, 감각이 있어야 해”, “너희들은 액팅만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액팅을 하면서 왜 하는지는 알고 있니?”(그룹 4, 참여자 6).

3.2.3 과정 분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처음하는 학생들로서 ‘맥락적 조건’으로 ‘신규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습에 몰입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다양한 간호요구에 맞추어 자신이 잘 수행한 간호에서는 자신감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중재적 전략’으로 주도적 학습을 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간호요구에 맞추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신규간호사의 업무를 잘 익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역량의 장, 단점을 발견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역량은 환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의 핵심범주는 역량을 향상해서 진정한 간호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등대 찾아가기’를 핵심범주라고 할 수 있다.

가. 신규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즐거움

참여자들은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처음 경험하면서 '미래에 도움이 될 밑천'을 쌓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관찰위주의 정규 실습과는 다른 다양한 직접간호를 통한 경험은(긍정 또는 부정) 미래의 멋있는 직업으로 '신규 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즐거움' 마음으로 실습에 몰입하고 있었다.

나. 자신의 간호역량 수준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간호사 업무 역할을 습득함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간호수준 역량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간호사를 통해서 간호현장의 생생한 정보 획득, 간호 기술,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 간호사의 덕목, 인성, 실습 부서 분위기 및 타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통한 적응 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개념 간의 관계적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직접간호 수행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임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간호 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을 융복합으로 활용할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4. 논의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과정 경험을 이해하고자 초점 그룹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핵심 범주는 '등대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정규 임상 실습 때와 다르게 자신이 가진

임상 능력을 현장에 적용하고 싶기도 하고, 1년 후 자신들이 원하는 취업 병원에서 미리 임상 현장을 실습하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동기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업무를 미리 배우는 여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동기는 2~3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취업 관련 혜택에 대한 기대, 우수기관 탐색 기회 등으로 나타났다[18].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프리셉터십 학습 특성으로 일대일 교육이 체계적이라는 반응과 임상 실무 적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24].

참여자들은 '신규 간호사의 업무를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을 통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간호사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불러 줌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간호 단위 한 구성원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신규 간호사가 된 기분으로 실습에 몰입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에도 간호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아 존중감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자아 존중감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25]. 또한, 대상자에게 관찰 중심의 실습보다는 직접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일부 실습 부서에서는 수선생님만 학생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교육 과정에 알고 계신 것에 비하여, 일반 간호사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간호사들이 참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몰라 참여자들에게 '왜 실습 하느냐고' 할 경우에 당황함을 경험하기도 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학교와 임상 실습 부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프리셉터십 프로그램을 융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프리셉터십이 프리셉터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자신들의 지식, 기술 영역을 더욱 이론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전반적인 간호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한다고 하였다[26]. 또 다른 연구에서도 프리셉터로부터 임상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한 경험과 방법으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 활동,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역동, 대상, 주제 및 맥락적 조건 사이의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채택한다고 하였다[2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프리셉터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리셉터의 역할

을 하기 전에 워크숍에 참여하여 프리셉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고, 프리셉터와 신규 간호사와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업무 기술서가 있어야 하고, 같은 근무시간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8, 29].

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으로 프리셉터십 실습 전, 후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촉진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였다.

촉진 전략으로 하위 범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에서는 정규 임상 실습 때에 간호사들 간에 갈굼 현상을 때때로 본 것과는 다른 프리셉터십 실습병원에서는 구성원 간에 신뢰와 존중으로 관계지향적인 조직문화로 근무하기 좋은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가진 일부 편견 의식을 협동적이고 건설적인 조직 문화로 전환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학생 실습 초기와 4학년 때 인턴십 체험 경험을 통해 기존의 사고를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참여자 스스로 부족한 간호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중재 전략으로 ‘주도적 학습’ 증진을 채택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자가 학습하여 미래의 맛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도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고 자가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6].

Cho [30]의 연구에도 자기 주도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간호문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간호교육을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 학습전략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31].

웹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본 간호술 연습으로 인한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주도성이 증진된다고 하였다[32].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과제물에 대한 태도 및 요구도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과제가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3]. 시뮬레이션 교육 후 학생 스스로 과제 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 과정을 스스로 거치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인다고 하

였다[34].

참여자들의 실습시간도 간호사와 똑같이 3교대 실습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밤 실습을 통하여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밤 실습을 마치고 난 후에는 ‘잊지 못할 생애 첫 나이트 실습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역제 전략으로는 취업 후 임상에 취업할 것인지 아니면 임상과 다른 곳에 취업할까 계속 고민한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유능함을 인식하고,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 역량 있는 간호사의 모습과 유사한 결과이다[35, 3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의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37].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에게도 정규 임상 실습 때에 학교와 임상 실습기관 간 사전 간담회를 거쳐 실습 번표에 하루 정도는 야간에 실습하는 스케줄을 넣어서 실습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대상자 및 보호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경험은 서로가 신뢰감을 가지고 대하고, 진심이 있는 간호를 해 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에도 공감 병동 간호사 활동 경험을 통해 환자와 동료 간호사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간호사들이 자신의 삶의 소중함,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로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간호사들이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고, 환자를 응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38].

이에 비해 일부 대상자 및 보호자들의 실습생을 무시하는 말투, 실습생에 대한 폭언, 폭력의 행사, 부적절한 호칭의 사용 등에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참여자들만이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추어가기보다는 대상자 및 보호자들도 간호대학실습생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im 등[31]의 연구에서도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 환경 내에서 간호업무의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전문직 단체와 간호사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간호를 위해서 간호사, 의사 및 환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협력 및 조정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리셉터십 실습 참여자들을 위한 융복합적인 다양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동영상 활용하여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여자들은 몸이 아파도 자신의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로 여기는 측은지심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며 대상자들에게 맞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간호학과 내에서 비교과목으로 융복합적으로 체력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Lee와 Gu [39]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함께 운동을 하고 운동 경험을 나누고 운동에 대한 조언을 해 줄 가족이나 친구를 만들거나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근무를 할 때 자신의 생리현상도 제때에 해결할 시간도 없이 바쁜 업무 속에 친절성과 사명감을 가진 간호사 업무 관찰을 보면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직무만족도를 높여주면, 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진 및 이직 의도까지 줄여 장차 새로운 인력 모집 및 교육 훈련에 투입되어야 경제적인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40].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참여자들은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통하여 자신들이 한 업무에 대한 칭찬 속에 자신감을 얻고 '뿌듯함'을 느끼고, 신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이 남아 있지만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신규 간호사로 되어 가는 배움의 여정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프리셉터십 실습 병원도 확대하고,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추후에 남자 간호대학생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 근거 이론 연구 방법을 적용

하여 간호대학생(3년+1년 학제)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결과는 '등대 찾아가기'라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이 정규 임상 실습을 다 이수하고도 프리셉터십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신규 간호사의 역량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배움의 여정은 점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업무를 잘 습득하고 현장 적응력이 증진되면 간호사들의 이직이 줄어들어 간호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경험을 통해 임상 실습 교육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간호 지식과 임상 간호수행에서 부족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습 전략 프로그램을 융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수, 임상 실습 병원 및 간호관리자들은 효율적인 프리셉터십 융복합 실습을 위해서 실습 전에 모의 시뮬레이션을 1일-2일 정도 시행 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빠르게 변화되는 의료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간호학과 내에 융복합적으로 비교과과정으로 간호학생들의 체력, 스트레스, 인성 및 감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U. Karabacak, S. Serbest, Z. K. Onurk, F. E. Alsan, N. Olgun,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nurses' self-efficacy and psychomotor skills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 19, No. 2, pp. 124-130, 2013.
- [2] F. J. Grenier, M. E. Dewis, "The baccalaureate degree as entry to practice: A Canadian model of educational collaboration toward the goal." *Journal*

- of Nursing Education, Vol. 34, No. 2, pp. 87-88, 1995.
- [3] J. A. Halstead, J. W. Rains, D. L. Boland, F. E. May, "Reconceptualizing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Outcomes and competencies for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5, No. 9, pp. 413-416, 1996.
- [4] Y. Y. Hwang,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elderly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73-85, 2005.
- [5] T. Levett-Jones, J. Lathlean, "Belongingness: A prerequisite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8, No. 1, pp. 103-111, 2008.
- [6] T. A. Hartigan, S. L. Cobbett, M. A. Amirault, M. E. Muise, "Nursing graduates' perception of their under-graduate clinical plac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4, No. 1, pp. 1-12, 2007.
- [7]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Criteria. Home page,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4.
DOI:<http://kabon.or.kr>, May 15, 2017.
- [8] H. K. Hur, S. S. Choi, Y. H. Ahn, Y. M. Lim, Y. H. Shin, S. M. Park, et al,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receptors in clinical education for seni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4, No. 5, pp. 859-869, 2004.
- [9] M. K. Jeon, J. W. Oh,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39-346, 2017.
DOI:<https://org/10.14400/JDC.2017.15.1.339>
- [10] M. H. Cho, I.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143-154, 2007.
- [11] Hospital Nurse Staffing Status Survey, Business Report. Home page, Seoul: Hospital Nurse Association, February 7, 2017.
DOI:<http://www.khna.or.kr>
- [12] S. Faron, D. Poeltler, "Growing our own: Inspiring growth and increasing retention through mentoring." *Nursing for Women's Health*, Vol. 11, No. 2, pp. 139 - 143, 2007.
- [13] M. Goodwin-Esola, M. Deely, N. Powell, "Progress meetings: Facilitating role transition of the new graduat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40, No. 9, pp. 411-415, 2009.
- [14]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204-6214, 2014.
- [15] K. S. Bang, S. M. Chae, J. Y. Yu, M. K. Song, J. H. Lee, "Comparis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nursing competence, and practicum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with and without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eceptorship."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96-404, 2013.
- [16] M. T. Hickey, "Baccalaureate nursing graduates'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instructional experiences and preparation for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6, No. 1, pp. 35-41, 2010.
- [17] N. H. Kim, Y. S. Kwon, M. A. Kim, B. S. Lee, "Case study of the 1:1 preceptorship in education for seni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eimyung Nursing Science*, Vol. 13, No. 1, pp. 117-125, 2009.
- [18] G. S. Oh,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2015.
DOI:<http://dx.doi.org/10.15207/JKCS.2015.6.5.173>
- [19] S. Y. Ka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 1, No. 1, pp. 9-19, 2016.
- [20] D. N. Oh, Y. R. Um, C. M. Kim, S. Ju, J. H. Choi, M. S. Park, "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430-440,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430>
- [21] D. L. Morgan,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6.
- [22] J. Corbin, A. Strauss,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3rd Ed). Los Angeles, CA: Sage”, 2008.
- [23] E. G. Guba, Y. S. Lincoln,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5.
- [24] J. Y. Kim, I. S. Kim, “Experience of preceptorship for newly employed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0, No. 2, pp. 75-88, 2005.
- [25] M. R. Han, H. G. Kim,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63-272, 2017.
 DOI:<http://dx.doi.org/10.14400/JDC.2017.15.2.263>
- [26] C. H. Lee, D. O. Kim, “The effect of the preceptorship on nursing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precepto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2, pp. 345-358, 2000.
- [27] T. J. Fenwick, “Expanding conceptions of experiential learning : A review of the five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cogni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50, No. 4, pp. 243-272, 2000.
- [28] J. Shamain, R. Inhaber, “The concept and practice of preceptorship in contemporary nursing: A review of pertinent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ent*, Vol. 22, No. 2, pp. 79-88, 1985.
- [29] L. Ferguson, “Preceptor’s need for faculty suppor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Vol. 19, No. 2, pp. 73-80, 1996.
- [30] I. Y. Cho,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535-3547, 2014.
- [31] J. H. Kim, K. J. Kwon, S. H.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295-307, 2017.
 DOI:<http://dx.doi.org/10.14400/JDC.2017.15.4.295>
- [32] E. H. Park, H. R. Park, H. A.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 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7-86, 2015.
 DOI:<http://doi.org/10.152070/JKCS.2015.6.3.79>
- [33] H. W. Kwak, J. E. Lee,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DOI:<http://doi.org/10.5762/KAIS.2016.17.2.147>
- [34] E. H. Park, H. S. Kim, J. O. Kim,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41-248, 2015.
 DOI:<http://doi.org/10.152070/JKCS.2015.6.5.241>
- [35] S. B. Kwon, Y. H. Yom, E. K. Kwon, Y. Y. Lee, “The empowerment experience of hospital nurses using focus group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4, pp. 445-454, 2007.
- [36] S. Y. Kim, J. K. Kim, K. O. Park, “The role experience of preceptor nurse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 33-45, 2012.
- [37] H. Y. Song S. H.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628-640, 2016.
 DOI:<http://doi.org/10.5762/KAIS.2016.17.9.628>
- [38] K. Y. Rhee, Y. R. Tak, “A Phenomenological convergence study on the empathic activity

xperience of the Compassion ward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7, pp. 47-62, 2017.

DOI:<http://doi.org/10.152070/JKCS.2017.8.7.47>

- [39] M. S. Lee, M. O. Gu,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rst and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53-67, 2017.

DOI:<http://doi.org/10.5762/KAIS.2017.18.6.53>

- [40] B. M. Bang, S. Y. Lee, J. W.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05-213, 2015.

DOI:<http://dx.doi.org/10.14400/JDC.2015.13.2.205>

남 문 희(Mun, Hee Nam)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학, 환자안전, 의료 질 관리, 건강증진
- E-Mail : ny386@hanmail.net

김 혜 옥(Kim, Hae Ok)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학, 질적연구, 간호 인력관리
- E-Mail : hok503@hanmail.net